

VOGUE

서울의 밤이 예술로 좁혀지는 네 번의 산책, 2025 프리즈 네이버후드 나잇

2025.08.29

[안동선](#)

도시의 낮이 서서히 접히고 골목과 갤러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작품은 낮과는 다른 목소리로 말을 시작한다. 9 월 1 일부터 4 일까지 열리는 ‘네이버후드 나잇(Neighborhood Nights)’은 을지로·한남·청담·삼청 네 구역을 무대로 여러 갤러리가 밤 10 시 정도까지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아래는 나흘의 동선을 시뮬레이션한 코스다.

삼청 나잇: 9 월 4 일(목)

전통적인 갤러리 워크의 종착지라 할 만한 삼청 나잇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구심점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전 10 시부터 오후 9 시까지 상설·기획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미술관 마당에서 오전 11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이어지는 야외 프로그램과 마켓은 올해도 다채롭다. 농산물존·생태존·디자인존·아트북존 등 6 개 구역에 약 55 팀의 판매자가 참여해 장터를 채운다. 저녁 7 시부터는 예츠비, 씨피카, 지소쿠리클럽이 무대를 꾸미며 열기를 더한다.

삼청 일대 갤러리 프로그램 중에서는 [바라캇 컨템포러리](#)의 [지미 로버트](#) 개인전이 눈에 띈다. 로버트는 가시성, 정체성, 재현의 정치학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작가로, 쿼어와 인종화된 신체가 이미지 생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해왔는지를 퍼포먼스, 영상 등을 통해 추적한다. 국내 첫 개인전인 만큼 대표작과 신작 영상, 퍼포먼스를 함께 선보이며, 삼청 나잇에는 오후 6 시와 8 시 두 차례에 걸쳐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 백아트에서는 50 여 년간 일상의 행위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실험을 이어온 성능경의 개인전 <뽕~ 획!>을 열고 있다. 전시 제목은 신작 퍼포먼스에서 작가가 직접 깎아 만든 싸리나무 회초리를 휘두를 때 나는 소리에서 따온 것으로, 단순한 행위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해 시대성과 접속하는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약 80 여 점을

선보인다. 삼청동 이웃과의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갤러리 측은 맛은편 한식당 ‘마나님 레시피’의 매실차와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VASAK의 김부각 등으로 드링크 리셉션을 준비했다. 갤러리 측에 따르면 성능경 작가는 삼청 나잇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갤러리에 상주할 예정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퍼포먼스는 [갤러리현대](#)가 밤 10시에 선보이는 국가무형유산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전승자인 만신 김혜경의 <대동굿 비수거리(작두굿)>다. 1990년 여름 갤러리현대 앞뜰에서 백남준이 요셉 보이스를 기리며 벌인 굿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전통과 현대, 예술과 영성의 경계를 횡단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TV 16대와 해체된 피아노를 배경으로 펼쳐진 그 굿은 백남준이 붙인 제목 ‘늑대 걸음으로(A Pas de Loup)’처럼 강렬한 상징성과 메시지를 남겼다. 김혜경의 퍼포먼스는 그 맥락을 이어받아 전통 의례가 미술 현장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재해석되는지 보여주는 자리다.

[국제갤러리](#)에서는 루이즈 부르주아와 갈라 포라스-김의 개인전이 함께 열리며, [갈라 포라스-김](#)의 아티스트 토크가 오후 6시에 예정돼 있다. <아트리뷰> 편집장 마크 래폴트와의 대담에서 사물이 제작·인식·보존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분류 체계와 소장품 문화를 중심으로 포라스-김의 예술적 관심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어 오후 8시부터는 [모과](#)의 디제잉 퍼포먼스가 무대를 잇는다.

삼청 나잇의 마무리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초이앤초이갤러리](#)다. 유진영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이 공간은 아름다운 옥상을 품고 있어 늦은 밤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밤이 깊어질수록 갤러리 창 너머로 퍼지는 도시의 공기와 옥상 위의 잔불 같은 풍경 속에서 컵라면과 맥주로 소소하게 밤을 정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다.

****행사 시작 시간이나 입장 조건은 변동될 수 있다. 방문 전 각 갤러리의 인스타그램 공지를 확인하면 더 여유롭고 완성도 높은 네이버후드 나잇을 즐길 수 있다.**